

朝鮮後期 委巷文學과 士大夫

— 申靖夏 · 申昉과 洪世泰 · 鄭來僑를 중심으로 —

蔡 奭 鍾*

目 次

| | |
|---------------------|-----------------------|
| I. 序 論 | IV. '窮而後工'論의 傾倒와 그 啓導 |
| II. 文學을 통한 交遊의 擴大 | 1. '窮而後工'의 傾倒 |
| III. 委巷人의 삶과 詩風의 變質 | 2. '窮而後工'의 批判 |
| 1. 委巷의 삶과 葛藤의 流露 | 3. 學識을 통한 '自窮意識'의 克服 |
| 2. 詩風의 變質 | V. 結 論 |

I. 序 論

조선조 후기시론의 전개과정 중에서 유독 관심가는 것이 천기론이다. 즉, 개인의 감정을 드러냄에 있어 되도록 자연스럽게 표현하자는 것이 이것의 핵심인데, 수사상·시작법상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眞詩라 이름하였다. 이 점에 있어 당대 문단의 두 계층인 사대부와 위향인간의 차이는 별반 없었던 듯하다. 후기 천기론의 재창도를 시도한 農巖 金昌協(1651-1708)과 그의 아우 三淵 金昌翁(1653-1722)을 중심으로 한 그 一門들의 입장이 이쪽으로 정리되면서 새로운 시론의 질서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일치된 견해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단의 속사정은 제 각각인 면이 있어서 그리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특히 이 시기는 이전부터 있어 왔던

* 忠南大

여러 가지의 산적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부닥치는 요원함도 함께 노정되어 더욱 복잡한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편의 와중에서 詞壇의 重望을 받고 있었던 인물들에 이리저리 附和雷同하며 발생한 餘蘊은 어지럽기 짝이 없었다. 일찌기 澹軒 李夏坤(1667-1724)은 이 점과 관련하여 날카로운 지성의 一喝을 그쪽에 던졌다. 삼연을 따랐던 많은 추종자들의 부화뇌동을 한껏 지적한 것을 보면 가히 이 시기의 문학질서의 재편이 물고 오는 혼란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¹⁾ 이렇듯 기존의 문학질서의 해체와 재편의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들이 이 시기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중에서 위항인으로 살아 가면서 流露된 갈등이 唐風이나 宋風이나 하는 學詩의 문제와 어우러지면서 야기된 이들의 시풍격의 변질과 자신들의 위상 제고에 많이 이용되었을 ‘窮而後工’論은 혼란한 가운데 양쪽에 적잖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사항들이다.

당시 사대부이든지 위항인이든지 간에 唐杜를 배격한 것은 아닌 만큼, 분란의 소지는 당풍의 경도로 야기된 悲憤慷慨에 있었다. 즉 悲風促迫한 시어의 남발이 문제가 되었는데, 唐杜를 배우면서 자신들의 신분적·사회적 환경의 억압이 함께 어울어져 시로 발산되면서 문제는 커지게 되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러한 곤궁한 형편을 자신들의 시론으로 구체화하는 데 이용했다.

한편 위항인들의 경우 자신들은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쉽게 名利와 物累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천기론적 시창작을 옹호하던 이들에게 이 문제는 중요한 분발요인을 갖게 했다. 장자의 嗜欲이 깊은 자는 天機가 淺近하다는 말과 농암이 勢利와 嗜欲에 마음이 어두워진 자는 眞詩를 쓸 수 없다는 논리를 등에 업고, 선택된 자신들의 환경을 즐기차게 창작 여건과 결부시켰다. 그들 쪽에서 볼 때 이런 처지가 오히려 진시창작의 상승

1) 『頭陀草』下, 洪滄浪詩集序, 驪江出版社 1992, pp. 556-557, ‘三淵學益博眼益高 膽益壯 其詩愈變而愈奇愈新 又其聲氣光焰 足以鼓舞一世 故後進之士 莫不奔趨下風 奉其緒言 以爲金科玉條 三淵曰簡齋好 曰我爲簡齋也 三淵曰翠軒好 曰我爲翠軒也 三淵曰放翁好 曰我爲放翁也 間有一二語 爲三淵所獎 與便已岸然自大 以眞正詩人自命 曰我善新語善奇語善峭語 及觀其詩 則尖纖破碎 狹陋迫促 全乏意味眞氣索然 (中略) 噫! 後生輩才力本來單弱 學殖只甚淺薄 而徒知今日之三淵 而不知昔日之三淵 徒學下梢之三淵 而不學初頭之三淵 不復探究根本 直截源頭 甚至殆不省饒歌鼓吹爲何語 王楊沈宋爲何人 其流弊乃至於此 可勝歎哉!’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시적 성취도를 더 높여줄 것이며, 사대부들과의 차별성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게끔 되었다. 이런 그들의 사고를 山林草澤論이라 부를 수 있다. 이렇듯 구양수 이후 조선중기 이래 전개된 '窮而後工'論은 이 시기에 들어 전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당시 일군의 사대부들은 그들을 지지하기도 했지만 비판의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 비판은 그들의 '自窮意識'의 허상을 고발하는 데에서 시작되었으며, 독서를 통한 이의 극복을 勸勉啓導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題下の 恕菴 申靖夏(1681-1716)와 屯菴 申昉(1685-1737), 그리고 柳下 洪世泰(1653-1725)와 浣巖 鄭來僑(1681-1757)는 모두 農巖一門의 핵심인물이다.²⁾ 서암과 둔암은 숙질간으로 사대부이며, 유하와 완암은 당시 가장 名世했던 위항인이다. 같은 一門으로 이들은 누구보다도 긴밀한 유대를 맺어 상대의 문학행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 詩作態度에 있어서만큼은 관점을 달리했다. 이 점에서 당대 문학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인물군으로 쉽게 선택될 수 있었다.

그동안 이 시기의 연구가 개별 작가론, 또는 위항인맥 쪽만의 문학적 특징을 파악해 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위항문학의 전개양상을 살핌에 있어 사대부의 몫은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점에 기초하여 이들은 개별층위의 연구태도를 지양하였다. 그리하여 보다 정확하게 당시 문단적 상황과 위항문학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詩作性向 및 관심의 정도를 이해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II. 文學을 통한 交遊의 擴大

위항인들과 사대부간의 문학적 교류가 폭넓게 이루어진 것은 17-8세기에

2) 이들의 생애에 대해서는 김성희, 鄭來僑詩研究, 연세대 碩士論文 1988. 文盛培, 浣巖鄭來僑研究, 成大 碩士論文 1990. 安大會, 洪世泰論, 『朝鮮朝 漢詩作家論』 東岳語文學會 1993. 李相鎭, 柳下洪世泰研究, 成大 碩士論文 1984. 拙稿, 恕菴申靖夏의 古文觀, 『語文研究』 第19輯, 忠南大 語文研究會 1989를 참고할 수 있다.

와서였다. 애초에 이들은 사대부들이 중심이된 詩社에 참여하다가 본격적으로 중심일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들만의 시사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집단적 대화회적 욕구를 분출시키는 과정은 이들이 등장하기 이후였다. 三淸詩社를 결성하고 『六家雜詠』이란 동인지를 내고 洛誦詩社에 유하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위향인들의 문학적 재능이 사대부들의 관심권하에 놓이게 된 것만은 사실이다.³⁾ 급기야 이런 분위기는 농암을 從遊하던 유하가 농암의 권고로 『海東遺珠』를 편찬하면서 이쪽의 관심과 폭넓은 이해는 더 커지게 되었다. 이후 사대부의 위향인에 대한 계고된 인식이 재삼 확립되었고, 자연 교류의 폭도 더욱 확대되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류가 가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위향인들의 높은 문학적 수준 때문이었다.

愨菴 申靖夏는 石湖亭을 중심으로 詩社를 결성하여 활발한 詩作을 하였다. 그의 詩社는 洛下의 士大夫들과 委巷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구성되었다.

선생의 別業은 斗澗 상류 黔丹山 아래에 있었다. 산봉우리와 泉石의 勝地가 함께 갖추어 있었다. 앞엔 월계강이 골짜기를 뚫고 멀리서 흘러 들어와 흰모래가 휘감고 돌고 수면이 번쩍었다. 선생은 즐길 생각이 많음에 불시에 와서 머물다 담연히 돌아갈 줄을 몰랐다. (중략) 친구인 李瑋·李秉淵·李邦彥·洪啓迪·李重協·洪鳳祚, 門客 洪世泰·李湛·鄭來僑·鄭後僑 등이 또한 많이 와서 회동하며 交游하여 石湖三十詠이 있는데, 酬唱이 쌓여 하나의 詩集이 이루어졌다.⁴⁾

石湖亭의 수려한 자연경관⁵⁾ 아래서 洛下사대부들과 委巷의 문객들이 모여 잦은 詩會를 가졌다. 그리하여 이들은 石湖三十詠을 짓게 되었으며, 酬唱 詩集 한 권을 만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여기에는 당대 시단에 鳴世했던 위향인 흥세대·이운·정래교·정후교등이 참여했다. 이들의 참여로 시사는 활

3) 허경진, 『三淸詩社와 <六家雜詠>』, 『韓國學報』 第53輯, 一志社 1988.

千柄植, 『朝鮮後期 委巷詩社研究』, 國學資料院 1991을 참고할 것.

4) 申暉, 『直菴集』 卷19, 遺事, 『先生別業在斗澗上流黔丹山下 具有峯巒泉石之勝前臨月溪長江 壑峽遠來 白沙縈回 面勢昭曠 先生意樂之多 不時來留 澹然忘歸 (中略) 親友如李伯溫·李一源·李美伯·洪惠伯·李和仲·洪虞瑞 門客洪世泰·李湛·鄭來僑·鄭後僑 亦多來會同游 有石湖三十詠酬 唱積成一集.』

5) 成海應, 『研經齋全集』 卷50, 山水記上, 『石湖亭 愨菴申公靖夏所居也 申公少有高致 好居江湖 每罷官即居此亭 臨江陟絕 亭背高嶺巖危 東望大江紆迴而匯于亭下 其勢圓如上弦之月 白沙瀾漫盈曠 月夜尤高.』

기를 띠게 되었다. 특히 이들의 참여는 석호정의 주인인 서암의 詩癡癖 때문이었다. 여기다 性情과 臭味가 서로 비슷하면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詩友로서 대하던 서암의 위인적 면모가 뒷받침 되었다.⁶⁾ 臭味는 바로 시를 짓는 것을 말한다. 그는 시짓기를 좋아해 삼연에게 보낸 서찰에서 열한두살 때부터 시짓는 것을 매우 즐겨하였으며, 지금도 시짓는 것에 진력하고 있다고 고백했다.⁷⁾ 이렇게 농암과 삼연을 모시고 학문과 詩作에 전념했던 農巖一門의 중심인물들이 위항의 목객들과 함께 잦은 詩會를 갖게 되면서 조선후기 시단은 살찌 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 詩社의 일원으로서 특히 서암을 從遊한 委巷人으로는 흥세대와 정래교를 들 수 있다. 그것은 서암의 언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위항의 선비가 시로써 세상에 이름이 나고 나를 따라 교유한자 三人이 있는데, 창량 흥세태·정후교·정래교이다. 세사람중에 늙은자는 창량이고 젊은자는 二鄭인데, 윤경(정래교의 字)만 나이가 나와 같다. 내가 세사람을 안 것은 윤경이 제일 먼저이고 혜경(정후교의 字)이 그 다음이다. 세사람이 나를 좇아 교유한 것은 모두 그들의 시 때문이다. 나의 시에서 창량과 혜경을 칭찬 것은 열두편인데, 윤경을 칭찬 것만 열너댓편이다. 그 교류가 오래되기 때문에 그 정이 특히 후하고 그 정이 후하기 때문에 그 시에 보인 것이 많게 되었다.⁸⁾

여기서 서암은 세 사람의 위항인을 지칭하고 있다. 그중에서 완암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시로써 그와 친교를 두터이 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서암은 이들과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슬픔을 느끼곤 했다.⁹⁾ 그러나 이들이 항상 함께 詩作을 하며 교유하기를 희망했지만, 각자

6) 『恕菴集』 卷6, 與李季通書, ‘夫朋友之道 可謂重矣(中略) 出於性情之相近 臭味之相類 自然而入 自然而不可離也.’

7) 『恕菴集』 卷6, 與金三淵書, ‘靖夏十一二歲 卽有意治聲詩(中略) 今靖夏之於詩 可謂盡力矣.’

8) 『恕菴集』 卷10, 贈鄭生來僑序, ‘委巷士之以詩名世 而從吾遊者 有三人焉 曰滄浪洪道長·鄭惠卿·鄭潤卿 三人之中 老者滄浪 少者二鄭 而潤卿獨於余爲同齒 余之知三子也 潤卿爲最先 滄浪惠卿其次也 三子之從余遊 俱以其詩 而於余之詩 其稱滄浪惠卿者 居十二三 而其稱潤卿者 則獨居十四五 其交也舊 故其情也特厚 其情也厚 故其見於詩也爲多.’

9) 위와 같은곳 ‘自余之與三子者遊 蓋未嘗一日離 而今乃相繼告別於半月之內 嗚呼

의 형편은 그걸 허락치 않았다. 그렇지만 떨어져 있더라도 창작한 시를 보내어 서로간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특히 유하에게 보낸 서암의 서찰은 대개가 그러했다. 문집중 제일 먼저 나오는 서찰에서, 아침에 까치가 와서 기쁘게 지저대서 마땅히 정다운 사람의 소식을 얻을 것이라 말했는데, 창랑에게서 과연 詩札이 이르렀다.¹⁰⁾ 라는 내용이 서두에 보인다. 이러한 詩札을 통하여 그들은 서로의 시작품에 대한 견해를 묻고 피력하며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은 다음 편지인 <與洪世泰>등에서도 계속된다.¹¹⁾ 그들의 관심사는 대개가 이렇듯, 시적 교류가 중심이 되었다. 그리하여 서암과 유하는 무려 30여년의 연령차이에도 불구하고 늘 시를 통하여 그를 극복하였으며 돈독한 친분을 나누었다.

유하는 53세의 나이에 황해도 웅진현의 屯田長으로 外任에 임한 적이 있다. 이때 서암은 <贈別道長海西之役>이란 시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서문을 남겼다.

道長이 海西로 수자리를 나감에 나는 이미 글을 지어 臆別했었다. 어제 槐檻의 모임에서 또한 각자 시로써 이별을 했었다. 오늘 윤경이 왔는데, 도장이 또 한편의 시를 보내어 그 연연합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을 보였으니, 얼마나 그가 우리를 사랑함이 두터운가! 돌아보건대 나는 어려서부터 우연히 문자를 고질적으로 좋아해서 당세의 문사들과 交遊하였지만, 창랑과 같은 이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중략) 내가 어찌 하루라도 도장을 잊을 수 있으리오? 때문에 도장이 비록 세상에 용납되지 못했지만, 나에게만은 忘形之友할 수 있어서 痛飲하며 그 기분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천하의 일이 항상 흠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지금 나는 朝籍에 이름을 걸어 다시는 한가한 사람이 될 수 없고, 도장 또한 白首의 나이로 해서에서 둔전장을 하게 되어 각자 명리와 구복으로 분주해 詩場酒席의 樂은 전에 말한 것과 같을 수 없었다. 어제밤에 서로 마주하여 이런 感歎을 말함이 끊이지 않았고, 도장이 우리를 이별함에 그 회포가 즐겁지 않음을 가히 알 수 있으니, 시 가운데 연연합 의미도 또한 족히 괴이할 것이 없다.¹²⁾

聚散之無常 其亦悲矣.’

- 10) 『恕菴集』 卷9, 答洪世泰, ‘朝來宮鶻有喜聲 謂當得情人消息 而滄浪果以詩札至矣.’
- 11) 위와 같은곳. 여기서는 홍세태가 보낸 詩紙中, ‘燕行贈別詩’들을 평하고 있다.
- 12) 『恕菴集』 卷2, 贈別道長海西之役, ‘道長海西之役 余既爲文以臆之 昨日槐檻之會亦各有詩以綴別矣 今者潤卿之來 道長又寄以一律 以示其戀戀不舍之意 何其愛我之厚也 顧余自幼又癖好於文字 其交遊當世文士 如不及如滄浪者 (中略) 余安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 그들은 많은 연령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망형 지우로서 지냈다. 서로의 어려운 처지와 괴로운 심사를 吐露하며, 한층 깊은 이해심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53세에 벽지로 낮은 벼슬길을 떠나는 유하는 서암과 지난밤 함께 하였던 괴함의 詩會를 잊지 못하며 연연해 했다. 그리하여 임지로 향하면서 완암을 통하여 한편의 시를 건네 주었다. 서암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그를 생각하며 한편으로 고맙고 한편으로 그의 앞날을 걱정하기에 이른다. 이때 서암은 24세(1705)로 增廣文科에 올라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가 있던 참이었다. 이제 서로가 자주 만나 시회를 갖을 날은 드물 것을 예감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별은 더욱 슬플 수 밖에 없었다.

서암의 유하에 대한 우의와 관심의 정도는 이와같이 지대했다. 이는 유하 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현재 『柳下集』에 남아 있는 서암 관련기록은 많지 않다. 산문의 경우 단 한편에 불과하다. 어린 시절 서암의 습작에 대한 평을 적은 서간문이 그것이다. 그러나 관련기록의 양이 적다고 해서 유하의 서암에 대한 情이 서암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하의 挽詩를 통해 볼 때,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시를 이야기했던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시는 곧 그들을 끈끈하게 맺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였다. 유하는 많은 양의 산문은 남기지 않았다. 그는 詩作에 전념한 시인이었다. 이는 서암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서암은 유하로 하여금 詩作에 방해가 될까 염려하여 作文을 하지 말기를 권하였다.¹³⁾ 유하는 35세의 젊은 나이로 夭逝한 서암을 애도하며 6수의 挽詩¹⁴⁾를 지었고, 그가 죽고 난 뒤 세월이 지나도 과거 자신을 잘 대해주었던 그를 생각하며 몇편의 시를 더 지었다. 그리하여 『柳下集』에 는 살아 생전 酬唱한 것을 합해 십수 편이 전한다.

『柳下集』 卷9에 실려있는 <與恕菴書>는 서암의 어린 시절 습작에 불과한 작품들에 대한 평으로 일관된 서찰이지만, 서암에 대한 사려 깊은 면모를 쉽

得以一日忘道長也 以故道長 雖不見容於世 於余獨能忘形 痛飲以吐其氣 却不知天下事 常難恰好 今者余既掛名朝籍 不復得閒人 道長又以白首之年 爲屯海西 各爲名利口腹奔走 詩場酒席之樂 不能如向所云者 曠昔之夜 相對說此感歎不已 則道長之別我 其懷抱之不樂可知 而詩中戀戀之意 亦無足怪也.'

13) 『恕菴集』 卷8, 答趙懷德叔, '姪於今世有兩願 欲使洪道長不作文 恐其妨於詩也.'

14) 『柳下集』 卷6에 5수, 補遺 卷13에 1수가 있다.

게 발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서암의 습작문은 <卓絶傳> 각 3편과 <湖亭日記>이다. 여기서 유하는 각 작품의 장단점을 자세히 지적해 줄 뿐만 아니라 습작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서암의 사기를 높여 주기도 한다. 특히 <湖亭日記>는 '寫出情景'이 잘 되어서 그의 문장에 '天機自得'함이 있다고 평가해 주면서,

바야흐로 이제 족하는 년소한데도 樹立한 바는 뛰어난이 이와 같습니다.
다른날 나이가 더욱 들고 학문이 더욱 진보되어 채워 커지면 그 성취한 바
를 어찌 가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¹⁵⁾

라고 첨부하여 서암의 사기를 높여 준다. 전반적으로 세밀하고 사려 깊은 점이 돋보인다. 이런 서암이 돌아가자 유하는 평소 자신을 知己로 허락했던 그를 애도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여생동안 廢詩하겠다는 결연한 마음을 보인다.¹⁶⁾

유하와는 지기로 지냈던 서암이지만, 同儕의 浣巖과는 文學上 師弟의 관계로 여겼다.¹⁷⁾ 그런 만큼 완암에 대한 기대 또한 컸으며, 위항인 중에서 가장 친숙한 유대를 맺었다. 가장 많은 편수의 시에서 그를 칭했다고 했으며, 가장 돈독한 관계였다고 술회했던 서암이었다. 그들의 관계가 시문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제간이 되다보니 서암집에 수록된 대부분의 서찰도 또한 그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또 서암은 늘 시문말고도 그의 궁핍한 삶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적 지주 역할도 했다. 그를 위해 지은 몇편의 산문들¹⁸⁾은 대체로 완암이 貧窮을 극복하고 독서를 통한 학문의 蘊蓄을 기대하고 責勵하기 위해 지어진 것들이다. 시문과 학문적 성취의 勉勵말고도 서암은 평소 많은 질병에 시달리던 완암을 위해 애썼으며, 山水遊覽의 욕망도 해결해 주는 세심한 배려도 보여 주었다.¹⁹⁾ 이렇듯 그들은 同儕의 사이로 신분적 한계를 뛰

15) 『柳下集』卷9, 與恕菴書, '方今足下年少 所樹立卓爾如此 他日年益高學益進 充而大之 則其所成統 何可量也.'

16) 『柳下集』卷6, 恕菴申學士挽 其一, 같은곳 悼恕菴 참조.

17) 『恕菴集』卷16, 雜記, '巷居子鄭來僑 學詩文於余.'

18) 예컨대, 卷10 送鄭來僑讀書巾幘序. 같은곳 贈鄭生來僑序. 卷12 勉鄭生來僑說 등이 그것이다.

19) 『恕菴集』卷10, 贈鄭生來僑序, '潤卿業多病 聞昌城出藥水泉 可以療已疾 又聞往

어넘어 시문의 학습과 학문의 매진을 위해 애썼을 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상 사에도 관심을 가지므로써 급기야 가장 절친한 관계로까지 발전하였다.

서암의 信望을 한몸에 받았던 완암은 그에 대해서 만큼은 절대적이라 할 만했다. 그는 어린시절부터 이미 서암을 존유하며 지냈기에 누구보다도 서암을 잘 알았다. 그리하여 그는 임종의 순간 서암의 각별한 유언을 받았다. 자신의 어린 자식을 잘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이 어린 자신의 자식에게 師弟의 禮를 다하라고 일렀다.²⁰⁾ 학식과 덕망이 있는 閔族의 자제를 위향인에게 교육을 맡겼다는 점은 새삼 음미해 볼 만한 대목이다. 완암 말고도 얼마든지 자신의 자식을 가르칠 만한 집안이기 때문이다. 이런 유언에 따라 그는 『史記』·『論語』·『孟子』와 고문을 가르쳤다. 완암은 어린시절부터 愨菴宅과 인연을 맺었다. 그의 진술대로라면 童卯의 나이부터 그를 존유하였다. 그 시절 衣纓의 신분과 布褐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던 때였다. 당시 서암 또한 그를 벗이라 부르기도 했다 한다. 그런 그였기에 서암이 돌아가자 머리털이 빠지도록 사방에서 糊口之策을 세워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²¹⁾ 이와같은 이들의 관계는 수십년을 함께 하며 揚雄과 侯芭의 관계로 자신들을 비유하였다. 후파는 양옹과 평생을 공유한 인물로 양옹이 죽자 墳을 써주고 心喪三年한 인물이다. 완암은 서암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했다.²²⁾ 이렇듯 당시의 문단에 鄭來僑라는 이름 석자를 걸게 하고 뛰어난 위향시인이란 일컬음을 부여받게 된 것은 어찌 보면 그동안 피상적으로 알려진 유하와의 관계속에서 얻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서암과의 관계속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믿는다. 서암의 갑작스런 죽음은 완암에겐 충격이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해 귀천을 잊고 同業하기를 誘掖啓導하였던 서암을 위해 祭文을 짓고 심심한 애도를 표했다.²³⁾

來多樓 觀山水之勝 欲因之一遊 將贏糧買乘 爲西關千里役'

20) 『浣巖集』 卷4, 申斯文明賓誥哀辭, '生十三歲而愨菴公卒 公臨終屬來僑曰 爾其善教兒子 俾克成焉 顧明賓曰 汝其處潤卿 以師禮焉.'

21) 위와 같은곳, '余自童卯從愨菴公遊 公則直呼余爲友 余則自處以侯芭 殆不知衣纓布褐之爲何物 自公之沒 余頭髮種種 而糊口於四方矣.'

22) 『浣巖集』 卷4, 洪進士夏瑞氏龜祚哀辭, '余於二君者皆相好 申公則數十年同遊處 獎我誨我 視我以侯芭.'

23) 『浣巖集』 卷4, 祭愨菴申公文, '公實余愛 忘賤與貴 誘以同業 啓我蒙蔽.'

이상으로 양자간의 交游樣相을 살펴본 결과 주로 서암을 중심으로 그들의 관계는 매우 돈독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들의 만남은 많은 연령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의 우정을 다했으며, 완암의 경우 그의 생애에서 서암과의 관련 사실을 빼다면 그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들은 학문과 詩作에 전념했다. 특히 石湖亭을 중심으로 한 詩社나 槐檻의 詩會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기도 했다. 그들이 石湖亭에서 만든 酬唱詩集이 현재 전하지 않아 아쉬운 감은 있지만, 당시로서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詩社였다. 그 구성원 면면이 그렇듯, 사대부와 위항인이 지극한 문학 애호정신으로 함께 유지시켜 나간 이 시사는 朝鮮後期委巷詩史上 주목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위항문학의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낸 장본인은 다름아닌 惻菴과 그의 長姪인 屯菴이었다.

둔암은 4세 위인 叔父 서암에게 절대적이었다. 그의 학문과 시문 수업은 모두 서암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더우기 문단활동 또한 그를 인연으로 하였음은 물론이다. 물론 유하·완암간의 유대도 서암을 통해서 맺어진 것이다. 『屯菴集』에는 이들 위항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만한 이렇다 할 기록은 현재 없다. 단지 <記崑山夜話>(卷5)와 <送洪世泰道長序>, <答鄭來僑書>(이상 卷4) 등을 통해 둔암과 유하와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일정한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도 그들의 유대가 돈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특히 완암과는 많은 세월 동안 等夷한 관계로 생각하며 우의를 돈독히 하였던 것이다. 물론 독서와 문학은 이들 상호간의 주된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이토록 그들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친밀함을 유지해 나갔다.²⁴⁾

한편 『柳下集』과 『浣巖集』에서도 둔암에 관한 기록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역시 둔암과 이들 위항인과의 관계는 서암을 중심으로 이룩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 그렇다고 둔암과 이들과의 관계가 소원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들간의 유대는 서암을 통해서 맺어진 것이 분명한 만큼 서암과의 돈독함만은 못하다는 것일 뿐이다. 다만 서암과의 유대를 추측할 때 둔암과 유하·완암과의 유대 또한 가히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요

24) 『屯菴集』 卷4, 答鄭來僑書, ‘潤卿與吾遊 十有五載矣 夷去等限 託以友義 意之所趨 皆與同 自讀書史爲文章 以至坐臥出入一動靜之間 無不共之 以迄于今矣.’

큰대 이들의 이러한 유대는 결국 서로의 문학적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때문에 누구보다도 위항인들의 문학행위를 신랄히 비판할 수 있었다. 문학에서의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는 당대 시점에서 비판과 성찰의 계기를 삼아 그들을 啓導勸勉하는 것이 이들의 몫이었으며, 이를 가능케 하였던 것이 이들 상호간의 돈독한 우의 때문이다.

Ⅲ. 委巷人의 삶과 詩風의 變質

1. 委巷의 삶과 葛藤의 流露

위항인들이 당시의 이름있는 사대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들의 시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을 지라도, 신분적 한계 때문에 겪는 괴로움은 컸다. 그들은 대체로 풍족한 삶을 향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浣巖集跋>에서 洪鳳漢(1713-1778)은,

지금 무릇 여항의 선비들은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이 더욱 막혀있다. 文章才行이 세상에 드러난 자도 마침내 능히 摺紳大夫에 비길 수 없으며, 또한 그 몸애 窮厄을 면치 못하니 슬픔이 심한 자들이다.²⁵⁾

라고 하여 당대 위항인이 처한 사회적 처지를 밝혀 놓았다. 이를 통해 볼 때, 그들의 신분적 한계는 곧바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궁핍이었다. 재주가 뛰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겪는 그들의 슬픔은 낮은 사회적 지위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까지 궁핍을 미쳤던 것이다. 그들의 사회적 신분에서 용납될 수 있는 주된 관직이란 京衙前과 技術雜職이었다. 경아전은 중앙부서의 胥吏에 불과했으나 조선후기 재정을 담당한 층을 중심으로 부정이 심각해져 蓄財할 수 있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들은 어려운 처지를 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製述官이나 또

25) 『浣巖集』卷4, 浣巖集跋, '今夫閭巷之士 又於東土之中 地尤局焉 文章才行之所以顯於世者 終莫能比侔於摺紳大夫 亦不免窮厄其身 可悲之甚者也.'

는 譯官, 그리고 吏文學官등의 낮은 직책뿐이었다. 실제로 완암은 이문학관을 지냈으며, 유하는 제술관 등 낮은 벼슬을 두루 거쳤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미 청요직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잠재된 역량을 펼칠 기회를 엿보며 사회적 제약에 대한 강한 반발의식을 갖기에 이르렀다. 다음에 든 두 편의 시는 그들의 이러한 신분사회에서 오는 제약 때문에 갖게 되는 갈등이 나타나 있다.

嫩竹纒數尺
已含凌雲意
騰身欲化龍
不肯臥平地

어린 대나무 겨우 몇 자이지만
이미 구름 뚫을 뜻 품었네
몸을 올려 용이 되고파
평지에 눕기는 싫다²⁶⁾

嗟哉爾盆菊
莫自詫奇絕
百草同一性
造化無冷熱
直爲處勢異
終令貴賤別
請看野中菊
亦有傲霜節

아아! 너 화분의 국화여
스스로 奇絶함 으스스거리지 마라
모든 풀 天性은 동일하고
造化에 冷과 熱은 없도다
다만 處勢가 다르기 때문에
마침내 귀천이 分別되었도다
청컨대, 들가운데 국화를 보게나
또한 傲霜의 節概가 있지 않은가?²⁷⁾

위 시들은 유하와 완암이 신분의 갈등을 읊은 많은 시들 중에 각각 한편씩을 예로 들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위의 시들은 둘다 공히 그 소재면에서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자신들의 강직하고 곧은 성품을 표현할 만한 것들이다. 나이 어린 嫩竹에 불과하지만 이미 강한 포부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昇天을 꿈꾸는 용으로 표현되었다. 곧 구름을 뚫고 하늘로 솟아 보겠다는 강한 욕망을 함께 갖고 있다. 그러므로 평지는 이미 그의 삶의 바탕이 되지 않는다. 비록 위항인의 신분에 불과하다손 치더라도 이미 그의 내면은 潛龍의 꿈이 서려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날 세상에 질실로 쓰임이 있기를 바라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는 단순한 그의 기상만을 읊은 시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미 이 시 속에는 반아 들이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는 잠재된 갈등이 嫩竹이라는 소재를 통해 換置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26) 『柳下集』 卷3, 嫩竹.

27) 『浣巖集』 卷1, 盆菊吟 其二.

이다.

완암의 盆菊은 더욱 강렬하고 직설적으로 갈등의식이 표출되고 있다. 盆菊과 野菊이 서로의 처지를 달리하며 대비되고 있다. 두련의 으스스거리지 마라는 금지 명령에서부터 그릇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낮추지 않는 시인의 항변을 들을 수 있다. 天性은 동일하다는 대전제를 밑에 깔고 있으므로 冷熱과 貴賤의 문제는 가치가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서리를 두려워 하지 않는 절개로 인하여 그들의 끈질긴 생명력의 고귀함을 역설했다. 앞선 시에서 嫩竹의 강렬한 삶의 의욕은 유하의 이상을 꿈꾸면서 형상화된 자신의 처지의 대치물이고 아래의 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盆菊에 대한 서슴없는 반성과 질타의 목소리는 완암의 세상에 대한 잠재된 의식의 결집이다. 그리하여 두시는 당시 위항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두 측면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자신들의 내밀한 포부와 세상의 제약과 차별에 대한 강한 비판정신이다.

그들의 강한 사회에 대한 비판 정신은 낮은 신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일찍이 유하는 이씨택의 私奴로 어렵게 免賤한 경험이 있는 위항인일 뿐이다. 그리하여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것은 窮乏과 厄運이었다. 그는 모친이 연로하여 봉양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하기 짝이 없었는데, 당시 蓄財한 같은 위항인인 林俊元의 도움을 받는 처지였다.²⁸⁾ 이런 사정은 완암도 마찬가지였다. 그 역시 집이 매우 가난하여 사면이 벽만 있었다.²⁹⁾ 그는 그토록 困窮飢寒한 생활 여건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하여 같은 처지의 유하도,

대개 그는 기이한 선비였다. 돌아보건대 역항에서 태어나 세상에 알아주는 자가 없었고 혹 알아주더라도 또한 즐겨 이끌어 발탁하지 않았다. 때문에 困窮하고 飢寒했지만 책을 끼고 추운 처마 아래 앉아 책 읽기로 하루 해를 마치니 사람들 모두가 그의 迂拙함을 비웃었다.³⁰⁾

라고 그의 안타까운 입장에 동정을 표했다. 그는 세상에 드문 기인이었으나 단지 위항인 신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사람들로 부터 버림을 받아야

28) 『浣巖集』卷4, 林俊元傳, '洪公母老而窶 無以爲養 俊元(中略)而數以財周洪公使不至匱乏.'

29) 李天輔, 『晉菴集』浣巖稿序, '甚貧窶 家徒四壁.'

30) 『柳下集』卷9, 送鄭季通敏儒序, '蓋其人奇士 願以其生閭巷之間 世無知者 而其或知者 亦不肯引而拔之 故困窮飢寒 抱書坐寒簷下 伊吾竟日 人皆笑其迂拙.'

했다. 그러나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환경은 항상 이렇듯 그들의 삶을 옥죄었다. 어떻게든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펼쳐보이고 싶었지만 사회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으며, 성현들의 도를 깨우치기 위한 독서는 그만 들 수 밖에 없었다.

집이 본래 가난하고 천하여 衣食에 다급했으므로 大志業엔 겨를이 없었다. 중년에 이르러 屯難하고 曠하여 동서로 곤궁하게 떠돌다 보니 드디어 廢學을 면할 길이 없었다.³¹⁾

大志業이란 곧 학문을 말하게 된다. 그들의 자존심과 존립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선택이 학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급기야 그것을 버리게 되었다. 그런 만큼 그들의 마음속에 쌓이게 된 것은 不平의 마음뿐이었다. 어떻게든 그들은 그런 마음의 짐을 벗어 버려야만 했다. 그들의 이러한 탈출구는 다름아닌 詩作이었다.

2. 詩風의 變質

위항인들에게 있어서 시는 특수한 환경으로부터 오는 불편한 심기와 우울한 기분을 여과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었다. 그들의 이러한 심기는 작시상 당시 새롭게 재창도되고 있는 송시풍보다는 당풍에 더 가까웠다. 그들은 지나치게 이에 집착한 나머지 시풍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유하는

쓸쓸함과 시름, 결분의 감정과, 울적함과 근심스러움, 불평의 기분이 일어나면 다만 시에만 발설하였다.³²⁾

라고 술회하였다. 이는 그의 노년의 글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하여튼 그는 세상의 모든 번뇌를 여과시킬 수 있는 장치로는 시 밖에 달리 찾을 만한 것이

31) 『柳下集』 卷10, 自警文, ‘家素貧賤 急於衣食 未遑爲大志業 及其中歲 屯難阨窮 東西怵迫 遂未免廢學.’

32) 위와 같은곳. ‘而遇有牢愁感憤鬱悒不平之氣 則獨於詩而發之.’

없었던 듯하다. 그리하여 그는 많은 양의 시편에서 현실에서 오는 출고 배고
프며 쓸쓸한 인생 歷程을 표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완암의 경우도
다를 수 없었다.³³⁾ 그러다보니 그들의 생활상은 그대로 시에 투영되기에 이
르렀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시적 어조는 悲憤慷慨할 수 밖에 없었
다. 신분적 불만과 사회적 제약은 그들이 늙고 힘들며, 더구나 그들의 처지
를 지원하던 사대부들의 손길이 끊기면서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다. 사실 유
하의 시는 노년의 시에서 그런 점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 대표작인 <鹽谷
七歌>는 그의 나이 69세에 지은 것으로 주로 자신과 가족의 우울한 처지,
신분과 사회적 한계상황 등이 나타나 있다.

기실, 비분강개한 것이 그들의 시적 어조다. 그것은 그들의 주된 소재로서
감상적이고 비애적인 시적 정서가 시창작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
리고 그들의 시작상의 특징인 감정의 솔직한 표현은 오히려 이러한 시적 정
서를 반영하기에 편리하였다. 감정을 여과시키고 절제하여 표현하는 것이 아
니라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점이 오히려 더 그런 쪽으로 몰아가
기에 손쉬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당시에 세상에서 비분한 인물로 지
목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사실에 따라 실제로 農巖은 柳下의 시풍을 방약무
도하며 비분강개한 춘추전국시대의 荊軻와 같은 인물들에 비유하였는데³⁴⁾
이는 이와같은 그들의 시풍을 잘 지적한 언급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칼쓰기 등을 좋아하는 호걸들인데, 이에 걸맞게 유하도 시적 소재로 자주 칼
을 등장시킨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³⁵⁾ 이런 특성은 역시 거침없는 감정의

33) 李相鐵, 柳下洪世泰研究, 成大 碩士論文 1984.

_____, 朝鮮後期閭巷文學의 展開過程과 文藝意識, 成大 博士論文 1991.

文盛培, 浣巖鄭來僑研究, 成大 碩士論文 1990.

尹在敏, 朝鮮後期 中人層 漢文學研究, 高大 博士論文 1990.

姜明官, 朝鮮後期閭巷文學研究, 成大 博士論文 1991 등의 논문등에서 주로 이
들의 시가 작가의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핍된 처지와 그에 따른 사회상황
을 다루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34) 『農巖集』 卷4, 贈洪世泰赴燕 其四 참조.

35) 이런 점들은 완암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 그도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는 울
분의 신세를 검을 통하여 형상화 시키고 있다. (『浣巖集』 卷7의 夢作劍銘 참
조.) 또한 그에 대한 李天輔의 말을 빌리자면, 그의 慷慨한 성조는 축을 치며
悲歌를 노래했던 연나라와 조나라의 선비와 위아래를 다들만한데 이는 그 연

발설을 통해 시를 짓기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다. 곧 그들의 시적 어조는 또 다른 시풍의 변조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들의 이러한 시풍은 당시 農巖에 의하여 새롭게 인식되고 있었던 宋詩風과는 일정하게 다른 것이었다. 당시 송시풍이 새롭게 재인식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실 자체가 곧바로 唐風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하의 경우는 지나치게 당풍에 경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농암일문들이 송시풍의 제고에 일치된 인식을 갖고 있었던 데 비하여 유하는 이들과는 달리 고집스럽게 唐杜에 치우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그의 시풍이 송보다는 그쪽에 더 가깝기 때문이었다. 즉 자신의 신분적 한계와 사회적 제약을 流露함에 있어 아무래도 송풍보다는 당풍이 적격이었던 것이다. 성정을 바탕으로 천기론에 입각한 眞詩를 쓰자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었지만, 사회적 신분과 정서적 차이가 서로 달랐던 그로서는 悲憤慷慨한 唐詩의 風格에 사뭇 傾倒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悲愁悲傷한 시풍의 變調는 삼연과 신씨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삼연의 경우 詩評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일단은 詩人의 態度가 있다는 농암의 말에 肥瘦得中이라는 말로 유하의 시를 호평했다. 그러나 삼연은 곧 悍健·深遠·高潔·雅正·俊亮·幻眇·清新·緊切한 점이 부족한 것을 지적했으며, 중년의 저작품 뿐만 아니라, 특히 그의 노년기의 漫興類의 작품들이 젊은이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연이 지칭한 젊은이들이란 자신의 제자로, 愬菴은 그 중심인물에 해당한다. 또 그는 젊은이들의 안목을 明眼이라 지칭함으로써 그들을 비호하는 입장에 있었다.³⁶⁾ 특히 유하의 노년기의 작품들이 신분적 사회적 悲傷함을 토로한 점들이 많음을 고려할 때, 당

원이 홍세태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李天輔, 『晉菴集』 卷6, 浣巖稿序, '往往聲調慷慨 有若與燕趙擊筑之士 上下而馳逐 蓋其淵源 所自出於道長。')

36) 三淵集 卷19, 答士敬, '詩評亦難矣 人各有所見 豈能強同乎? (中略) 仲兄論洪 有曰有詩人態度 吾亦曰 肥瘦得中 如斯已矣 如悍健·深遠·高潔·雅正·俊亮·幻眇·清新·緊切·巧妙都未近之 (中略) 中年與晚年 詩體勝劣 未曾細較 而大抵未蒞成家自處 以縱橫無礙 所以老去漫興 多受少輩之嗤點 少輩亦多明眼 豈可摠謂之昧味乎?'

시 남달리 시에 안목을 갖고 있던 농암일본의 新進士類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중에서도 신씨들의 비판은 더욱 심했다.

신씨들은 변색된 당풍에 趨步하는 위항인들의 이러한 시풍을 비판하여 아픔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신음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몰아 세웠다.

근래에 방용집서를 보니 곧 중국의 근세인이 지은 것이다. 가슴 속에서도 李杜요, 종이 위에서도 李杜란 말이 있는데, 가히 시를 잘 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근세에 學杜者는 悲愁困窮한 詩語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못 질병없이도 신음하는 자들이다. 나 또한 어릴 때에 이러한 病痛을 면하지 못했다.³⁷⁾

서암의 이러한 언급은 곧 변조된 당풍을 꼬집은 것이다. 唐杜를 배우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문제는 이에 기대어 悲颯한 시어를 사용하는 데 있다. 그들은 병이 없는데도 억지로 아파하며 신음하는 것이다. 변색된 당풍은 이제 물러가고 송풍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들은 이제 환경만을 탓하고 그것에 기인하여 悲愁困窮한 시어를 자제치 못하고 남발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서암의 인식이었다. 山林草澤이라는 환경이 곧 훌륭한 시를 태동시키는 장은 아닌 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그의 생각은 자신들의 선택적 환경이 뛰어난 시창작의 공간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믿는 위항인들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유하는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시를 매개로 하여 한없이 토로해 냈다. 그것은 어쩌면 두보를 배우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그리하다보니 그의 用心은 지나치게 悲愁해져 아픔이 없는데도 신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서암도 원래 당풍을 배격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도 당풍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유하에게도 唐杜의 風格에 가까이 할 것을 말했던 서암이었다. 서암도 그것이 시의 올바른 길이라 믿었던 것이다.³⁸⁾ 그렇지만 그것은 어릴 때의 생각이었다. 그는 唐杜를 배우는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병

37) 『恕菴集』 卷16, 雜記 評詩文, ‘近看放翁集序 乃中州近歲人所爲也 有胸中李杜 紙上李杜之語 可謂善論詩者 近世學杜者 多用悲愁困窮之語 殆亦無病而呻吟者 僕亦少時不免此病爾.’

38) 『柳下集』 卷6, 恕菴申學士挽 其三, ‘相逢必言詩 揚迄極千古 謂我門路正 風格逼唐杜 (以下略).’

통을 인식하고 부터 이의 치유에 힘썼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를 고쳤다고 술회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치유하지 못하고 당풍의 말패를 굳게 지키는 유하의 풍격은 농암일문들의 논란거리가 되었던 것이다.³⁹⁾

IV. '窮而後工'論의 傾倒와 그 啓導

1. '窮而後工'의 傾倒

'窮而後工'의 시론적 근거가 보다 구체적으로 확립된 것은 歐陽脩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사회에 처한 시인의 환경적 요인과 창작상에 일어나는 미학적 성취여부는 서로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 이 이론의 근간으로, 구양수가 梅聖俞의 시를 평하면서 썼던 것이다. 조선중기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찌기 여러 시인들이 관심을 피력한 바 있는데, 대체로 긍정하는 쪽과 부정하는 쪽으로 양분된 상태였다.⁴⁰⁾ 窮이나 達이 창작상의 변수와 상관성이 없다는 것이 부정하는 쪽이요, 양자간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 긍정하는 쪽이다.

18c초에 이르러 위항인들의 시작이 본격화 되면서 이 이론은 새로운 양상을 갖게 된다. 이들은 17c의 <육가잡영> 시대의 위항인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사회적 처지와 신분적 한계, 또는 궁핍한 삶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갖기에 이른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환경적 울분을 시의 주소재로 삼았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처지를 시론의 근간으로 삼았는데, 이때 '窮而後工'論은 그들의 입장을 지탱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39) 『怨齋集』 卷16, 雜記 評詩文, '滄浪洪世泰 少日爲唐 晚乃學杜 其格頗變 論者以爲學杜者 不如學唐 而洪之未服也 有一詩人 就問於農巖者 農巖笑答 曰吾從衆得失之論 遂定.'

40) 禹應順, 조선중기 '詩窮而後工'論의 樣相과 性格, 『韓國漢文學과 儒敎文化』, 蒼谷金世漢教授定年退職紀念論叢, 亞細亞文化社 1991, pp. 301-321 참조.

위향인들은 일단 사회적 신분상 達쪽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미 達보다는 窮쪽에 결정지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곧 名利와 物欲의 구속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사대부류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의 여지없는 환경은 오히려 그들에게 유리한 시론적 근간을 마련해 주기도 하였던 것이다. 즉 명리와 물욕의 소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眞詩를 창작하기 위한 제일차적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天機論的 시론을 구축해 준 農巖도 勢利와 嗜欲에 마음을 두는 자는 志意가 나누어 지고 視聽이 어두워져 사물을 똑바로 볼 수 없어 천기가 출중한 眞詩를 쓸 수 없다는 논지를 보였다.⁴¹⁾ 이는 속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상태로 마음이 깨끗하고 정신이 고요할 때 훌륭한 시를 지을 수 있다는 주장인데, 영욕과 일정한 거리에 있었던 그 밑의 위향인들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실제로 유하는 이러한 입장을 통하여 그들의 시론적 입지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名利를 벗어버리고 마음에 더러운 바가 없지 않은 자는 시에 능할 수 없다. 몽장씨가 말하길, 嗜欲이 심한 자는 그 天機가 얕다고 했다. 두루 살피건대, 옛부터 시에 그한 선비는 山林草澤의 아래에서 많이 나왔으니 부귀하고 勢利한 자는 이에 반드시 능한 것은 아니다.⁴²⁾

명리와 물욕에 구속되면 시가 공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작품의 질적 향상은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논지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쓰인 산림초택이란 다름아닌 자신들과 같은 환경, 또는 그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어휘다. 곧 환경적 요인이 창작의 심화와 일정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고 여긴 것이다. 그리하여 이 언급은 사대부들의 시와 자신들의 시와의 차별성을 은연중 강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곧 사대부들의 시보다는 자신들 시의 우수성을 입증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태여 명리나 물욕에서 벗어나고자 할 필요도 없기에 자연스럽게 眞詩를 쓸 수 있다고 믿었던 유하는 이러한 입장을 자신들의 천기론적 시론으로 고착

41) 『農巖集』 卷24, 霽月堂記 참조.

42) 『柳下集』 卷9, 雪蕉詩集序, '然而非脫落名利 無所累於心者 不能也 蒙莊氏有言曰 嗜欲深者 其天機淺 歷觀自古以來 工詩之士 多出於山林草澤之下 而富貴勢利者 未必能焉.'

화 시켰다. 그만큼 그는 궁핍한 자신들의 환경요인이 작품의 우수한 성취를 이끌 원동력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그는 ‘窮而後工’論을 은연중 신봉하게 되었다. 그는 <육가잡영>을 잉태한 三清詩社의 활동멤버 중 일원인 최기남의 아들 崔承太의 시집 서에서,

或者는, 시가 사람을 궁하게 하는데, 최자의 窮은 시가 공교했기 때문이니 시는 가히 할만한 것이 못된다고 했다. 대저 사람의 궁달의 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어찌 시가 工한가 不工한가에 매이겠는가? 보전대, 지금 세상에 시를 짓지도 않으면서 궁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궁할 바엔 차라리 시에 공교로운 것이 낫다.⁴³⁾

최승태가 곤궁한 위향인으로서 그의 환경이 오히려 시에 공교하게 된 점을 비판하는 일부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었던 이들을 반박하고 있다. 사람들의 인식은 오히려 시에 매달리는 위향인들이 시로 인하여 곤궁해진다고 믿었고, 그래서 급기야 시는 無用之物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유하는 사람의 궁달은 하늘에서 내려준 운명이지 그것이 시 때문에 발생할 만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위향인들이 그나마 어려운 환경하에서 쓰는 시의 존재가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던 것이다. 오히려 그는 옆집에서 불을 빌려 아침을 짓는, 궁핍하지만 소박한 위향인으로서의 삶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면서, 좋은 옷을 입는 부자들이 어찌 좋은 시를 쓸 수 있겠는가⁴⁴⁾라고 반문하였던 것이다. 이런 그의 반문 속에는 궁핍한 위향인들이 명리와 기욕에 빠지지 않으므로 해서 공교한 시를 내놓을 수 있다는 ‘窮而後工’에 대한 믿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즉 곤궁이라는 창작여건이 전제되므로 해서 얻어지는 성취도도 더 나올 것임을 믿은 것이다. 그가 최승태를 들어 시는 무용지물이라는 일부의 인식을 비판한 바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자신들의 선택된 운명이 오히려 시창작의 긴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것은 보다 나은 시적 성취를 상승시킬 것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러했기 때문에 돈만을 알고 수전노 짓이나 평생하다 죽어서 시신이 썩기도 전에 이름이 없어질 운명

43) 위와 같은곳, ‘或者曰 詩能窮人 崔子之窮 以詩工耳 詩不可爲也 夫人之窮 達有命在天 豈係於詩之工不工耶 見今世之不爲詩而窮者 何限 窮等耳 寧工於詩.’

44) 『柳下集』 卷11, 呈南隣 其三, ‘此生元弱植 猶幸倚親知 枕外分溪色 牆頭對檜枝 岳雲同夜臥 隣火接朝炊 却笑裝羊輩 何曾有好詩.’

45)에 처할 이들에 대하여 一喝을 보냈던 것이다. 그는 명리를 좇으며 요족한 이들 보다 차라리 궁자로서 시의 공을 추구하는 위항문학인들을 옹호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는 누구보다도 ‘窮而後工’을 신봉한 인물이다. 그것은 이미 그들 자신이 몰락과 명리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위항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澹軒 李夏坤은 평소 아끼던 유하가 60이 넘은 나이에 蔚山의 監牧官으로 떠나는 처지를 안타까이 여겨 送序를 주었다. 그는 이글에서 주로 유하의 ‘窮而後工’의 성취도의 우수성에 대하여 입증하려는 태도를 명확히 드러냈다. 그는 먼저 이글에서 ‘詩能窮人’과 구양수의 ‘窮而後工’의 두 관점을 구분하고 있다. 그 말의 의미는 비슷하지만 같지 않음을 전제로 삼고 당의 孟郊와 賈島, 송의 梅聖俞와 陳無己를 예로 들어 ‘詩能窮人’의 모순을 지적하였다.⁴⁶⁾ 그는 오히려 ‘詩能窮人’보다는 ‘詩能達人’을 믿는 쪽이었다. 위 4인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여겼다. 시로써 물질적으로나 높은 벼슬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후세인들에게 높은 명망을 얻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澹軒은 시창작 자체가 유하를 궁핍하게 한 것이 아니라 유하에게 닥쳐온 궁핍한 운명이 오히려 그의 시를 공교히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중년에 기막힌 화와 궁핍을 만나 여러번 빈사하려는 위기로 고생했다. 대저 이른바 시인의 궁한자 도장보다 지나친 자는 있지 않다. 만년에 비로소 이문학관에 보직되었고 벼슬한지 십년에 송라역 찰방을 얻었는데, 임지로 가다 막는 자가 있어 마침내 부임하지 못했다. 그 窮餓는 날로 심했다. 게다가 자식은 없고 단지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도 또 서로 이어서 죽었다. 슬퍼하며 초채했으며 모습은 뇌쇠하여 수염과 백발이 회곳했다. 보는 자들이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시는 더욱 공교했다.⁴⁷⁾

45) 『柳下集』 卷9, 雪蕉詩集序, ‘彼生爲守錢虜 死尸未冷 而名已滅者 亦何足道哉.’

46) 『頭陀草』 下, 送洪道長之蔚山序, 『驪江出版社』 1992, pp. 493-494, ‘世之談者必曰詩能窮人 而至宋歐陽永叔始云 非詩之能窮人 殆窮者而後工 其言則似矣 然猶有所未盡者 蓋詩不特不能窮人而已 其所以達人者 又有勝於公卿將相富貴輝赫者焉 夫自古詩人之窮者 必稱唐之孟郊賈島 宋之梅聖俞陳無己 而當其世 公卿將相富貴輝赫者 何限 而其人者名姓 皆已磨滅無存 與草木同歸乎 腐朽漸盡 而獨孟賈梅陳輩 其文章 若日星之昭灼 至今照人耳目 故夫誦其詩 讀其辭者 無不想像興慕於千載之下 此與富貴輝赫於一時者 何如哉 然則詩果窮人乎哉?’

47) 위와 같은곳, ‘然而中歲遭奇禍窮困 畏約累濱危死 夫所謂詩人之窮者 無有過於

중년과 말년에 유하에게 닦친 어려운 환경은 그를 참혹하게 만들었다. 하도 참혹해 담헌은 시인 중에서 가장 궁한 자라고 그를 일컬었다. 그렇지만 어려운 환경은 오히려 유하의 시가 더욱 공해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했다. 딱한 처지는 거꾸로 시창작동기를 부여한 셈이다. 벼슬로의 입신도 어려웠고 자식복도 없는 불우한 내외적 환경은 오히려 그를 시쪽에 더욱 매달리게 하였고, 그래서 그 작품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담헌은 여긴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유하가 한 때에 궁했으나 그의 시로서의 현달은 무궁할 것이라 주장하였던 것이다.

담헌처럼 위항인의 처지를 옹호해줄 만한 이로 식암을 들 수 있다. 息庵 金錫胄(1634-1684)는 유하를 아끼고 도와주며 그의 문학성을 인정해 준 인물이다.⁴⁸⁾ 그도 유하와 같은 처지의 인물들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글을 지었다. 그는 여기에서 “대저 세상의 이른바 達者의 窮은 도리어 窮者의 達과 같지 않다. 달자의 達은 일시에 達했을지라도, 그 窮함은 만세에 窮했고, 궁자의 窮은 일시에 窮했을지라도 그 達함은 만세에 達했다. 일시에 達함을 오히려 達이라 말하거늘, 하물며 만세에 達한 것이야? 만세에 窮함을 오히려 窮이라 하지 않거늘 하물며 일시에 窮한 것이야?⁴⁹⁾”라고 하였다. 이는 현세에 궁핍하게 살아가는 위항문학인들과 같은 이들의 입장에서는 크고 고무될 만한 언급이다. 즉 현실은 불만 투성이지만 그들은 이미 세상에 높은 詩聲이 있으므로 만세에 達한 자로 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는 발언이었다. 이는 일시적 달보다는 영원한 달에 가치를 부여한 점에서 유하를 평가했던 담헌의 입장과 같다. 이런 입장이라면 그들은 자신들의 문학

道長者 晩後始補吏文學官 積仕十年 得松蘿驛察訪 當路有尼之者 終不得赴 其窮 餓日益甚 且無子 只有二女 二女又相繼而死 悲愁憔悴 狀貌龍鍾 鬚髮皤然 見者莫不哀之 而其詩則愈益工.’

48) 息庵과 柳下와의 관계는 ‘息庵金公 見而歎賞曰 高岑者流也 每稠人廣衆 騰龍不離口 及公扈困且死 爲出力以濟之.’(『浣巖集』卷4, 滄浪洪公墓誌銘)와 ‘息庵金公 嘗見而歎曰 百年來無此作矣.’(『頭陀草』下, 위와 같은곳)를 통해서 그 친밀함을 추측할 수 있다.

49) 『息庵先生別稿』二, 詩能窮人賦, ‘夫世之所謂達者之窮 反不如窮者之達也 彼之達 達於一時 其窮也 窮於萬世 此之窮 窮於一時 其達也 達於萬世 達於一時 猶謂之達 而況達於萬世者乎 窮於萬世 猶不爲窮 而況窮於一時者乎?’

행위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당대를 전후한 息庵과 滄軒의 이러한 옹호는 곧바로 유하등의 위항문학인들에게 그들의 문학행위의 목적의식을 고무시켜줄 뿐만 아니라, 문학생활 자체에 신선한 자극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2. '窮而後工'의 批判

息庵과 滄軒등이 위항인들의 '窮而後工'의 입장을 옹호했지만 모든 당시의 사대부들이 그들의 그런 면을 지지해 준 것은 아니다. 특히 申氏들은 그들의 그런 면들을 철저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愾菴은 '窮而後工'론이 세상사람들의 口實이 됨을 아쉽게 여겼다. 곤궁을 핑계로 삼아 시가 工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논하는 것에 거부를 느꼈다.

한창려가 말하여 이르길, 문장의 지음은 항상 초야에 있다라 하였고, 구양공이 이르길, 궁한 이후에 시에 工하다고 하였다. 대저 두사람의 말이 나오기 부터 시를 논하는 자들이 드디어 口實로 삼았다. 그러나 이제 外舅 귀와공의 東行諸作들을 보면, 그 景物을 그려냄에 공교하고 오묘함이 갖추어 지극하다. 자못 세상에 붓을 팔고 적서 시인 문사로 自命하는 자들이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니, 어찌 대저 반드시 초야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궁한 뒤에 工함을 볼 수 있으리요? 그런 즉 두 사람의 말은 또한 때에 따라 廢할 때도 있겠다.⁵⁰⁾

이 글은 유하의 산림초택의 환경론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초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시에 공교로울 수 없다는 서암의 주장은 당시 위항인들이 그것을 구실 삼아 그들의 시적 우수성을 강조하려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이기도 하다. 같은 이유로 韓愈와 歐陽脩의 두 가지 이론도 때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口實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당시의 많은 위항시인들이 '窮而後工'을 자신들의 시론으로 삼는 것에 염증을 느꼈음을 엿볼 수 있다. 서암은 자신의 丈人인 귀와공의 시가 그들의 주장처

50) 『愾菴集』卷12, 外舅翁公東遊詩跋, '韓昌黎之言曰 文章之作 恒在於草野 歐陽公曰 窮者而後工於詩 自夫二子者之言出 而論詩者 遂以爲口實 然今觀外舅歸翁公東行諸作 其狀景物 工妙備至 殆使世之吮毫濡墨 以詩人文士自命者 愧死 烏覩夫必在於草野 必窮而後工哉 然則二子之說 亦有時而廢矣.'

럼 그러한 여건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工妙한 경지에 올랐음을 지적했다. 서암은 억지로 마음을 쓰지 않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시가 공교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즉 자신이 스스로 궁하다고 믿으며, 또 궁한 쪽으로 자신의 처지를 억지로 몰아가는 위항인들의 그릇된 인식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쪽에 ‘작용하려는 마음(用心)’이 없어야 비로소 시에 이해진다고 여겼다.⁵¹⁾ 이렇게 서암은 ‘窮而後工’論의 지나친 口實化와 이에 ‘用心’하려는 일부 시인들의 그릇된 인식의 편향성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위항인들의 그러한 관점을 비판하고 나선 데는 또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들이 ‘窮而後工’論을 가지고 자신들의 입장을 공고히 한 결과 槁苦하고 悲颯한 詩語를 남발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시어의 남발은 결국 그들의 시풍이 悲傷함을 면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르렀으며, 시단이 이쪽으로 오염되어 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둔암은 50이 넘은 나이에 襄津으로 屯田長을 나가는 柳下를 위해 送序를 지어 주었다. 이 글은 적어도 유하가 더이상 ‘窮而後工’論의 입장에 고착되어 지나친 ‘自窮意識’에 사로잡히지 말 것을 당부하는 마음에서 준 것으로 보인다. 둔암은 이 글에서 유하가 금세기 최고의 詩窮之人이라⁵²⁾고 지칭하였다. 바로 이 지적은 그의 이런 점을 염두해 두고 한 말이며, 어떻게든 그가 그쪽에 고착될 것을 우려하면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유하만이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다.

옛 문인 한퇴지가 지은 送窮文에 文窮이란 說이 있는데 말하는 자들이 부러워 하며 이르길, 詩能窮人이라 하고 또 窮而後工이라 하여 드디어 口實이 되었다. 今世에 점차 시로써 自名하는 자들이 문득 窮으로 自居하며, 槁苦悲颯한 言語를 즐겨 쓰고 衰世한 音調에 내달렸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들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보는 자들도 이상스럽게 여기지 않았으며, 보고서 당연히 생각했다. 나는 그것을 매우 슬프게 여긴다.⁵³⁾

51) 위와 같은곳, ‘蓋公之無所於用心 而詩始工焉.’

52) 『屯菴集』卷4, 送洪世泰道長序, ‘道長今所謂詩窮之最者也.’

53) 위와 같은곳, ‘昔文人韓退之 作送窮文 有文窮之說 而言者羨之 曰詩能窮人 又曰窮而後工 遂爲口實 今世之稍以詩自名者 輒以窮自居 喜爲槁苦悲颯之言 駭駭乎衰世之音 而爲之者不疑 見之者不異 視爲當然 余甚悲之.’

위 글을 통해 볼 때, 시로 이름났던 인물들 중에 상당수가 詩窮人으로 자처했던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이 글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없지만 위항인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詩能窮人' 또는 '窮而後工'을 구실 삼는 시인일수록 그들의 시어나 읊조는 한사코 槁苦悲颯하며 衰世한 것들 뿐이었다. 왜 그런가? 18c에 들어서 일시에 위항인들이 문단의 전면에 포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詩才로 사대부들의 옹호를 받으며 어느새인가 자신들의 입지가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럴수록 그들은 자신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신분의 구속을 벗어나고자 하였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괴로웠다. 그럴수록 그들은 자연히 자신들을 포함한 사회적 모순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거침없이 시로 표현해 냈다. 자연 그들의 시어는 悲憤慷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아가 이들은 한퇴지, 구양수등이 주창한 '詩能窮人', '窮而後工' 등의 이론을 끌어들이어 자신들의 딱한 처지를 위한 보호막으로 사용했다. 그들의 시론은 이렇게 고착되었다. 이런 풍조는 일시에 문단으로 퍼져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보는 사람이나 모두들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하여 시풍은 일시에 槁苦悲颯하며, 衰世한 읊조를 量産하기에 이르렀다.

둔암은 이것이 잘못된 풍조라고 생각했다. 설사 그들이 겪는 시대적, 신분적 아픔은 이미 古代에도 얼마든지 있어 왔다. 그러나 고인들은 槁苦悲颯하거나 衰促迫切한 시어를 남발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둔암은 古詩의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詩經의 國風을 읽어서 자신의 생각이 잘못이 없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했다.

대개 二南의 教化가 꺼지고 周가 드디어 동쪽으로 옮기고 부터 왕실이 쇠퇴하고 천하가 도탄에 빠졌다. 선비가 불행히 그사이에 살아남아 君王 忠臣 孝子 志人 義士등이 있었는데, 참소를 걱정하고 기를 두려워 해서 자리를 잃고 나라가 망하여 그 流離顛沛될 때에 걱정하고 슬퍼 탄식하는 뜻을 稱託할 수 없어, 한결같이 歌謠에 발산하여 읊조리고 탄식하였으니 곧 그 窮함 또한 심했다. 그 발산한 것은 마땅히 울적하고 몹시 슬퍼서 차마 읽지 못할 것이 있었지만 그 歌辭는 모두 사물에 견주고 비슷한 것에 연해서 모호하고 諷喻하였기에 篇을 마치더라도 그 뜻을 노출치 않았다. 비록 걱정스럽고 슬픈 의미를 띠더라도 절대로 衰促迫切한 시어는 없었으며 자연히 여운이 있었으니, 이것이 어찌 그 궁함이 今人에 미치지 못해서였겠는가? 대개 그 爲人됨이 모두 그 안에 기른 바가 있어서 시대로 더불어

어 옮겨가지 않았으니, 비록 세상의 망극함을 만나 그 비탄을 발하는 사이에도 그 마음의 기른 바를 다치지 않았다.

지금의 선비들은 이미 당시의 환란이 없는 데도 그 무덤이나 보호하고 집에서 한가로이 지내며 단지 爵祿이 능히 이르지 못하고 衣食이 뜻과 같지 않으므로써 이미 놀란 듯이 自傷하니 不祥之福이 지나치다. 가령 당시의 사람들이 속인이 된다 해도 장차 다시 옛적의 언어가 있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지금과 같은 시들이야? 대저 만난 바 시절이 고인같지 않은 데, 한 바의 언어는 곧 고인의 하지 않은 바니, 이것은 이른바 아픔이 없는 데도 신음하는 자들이다. 그 窮은 곧 스스로 窮함이니, 어찌 시대문인가? 대저 命이 있는 物을 구함에 命이 이르지 않아 얻지 못하면 문득 窮이라 생각하니, 비록 그 구하는 바를 얻더라도 또한 어찌 그 다른 것이 없겠는가? 그런 즉 그 窮은 장차 끝나는 때가 없을 것이다. 몸이 부족한 것을 오히려 窮이라 하거늘 하물며 스스로 그마음을 窮히 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窮이 심하다. 만약 簞瓢陋巷에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고 醜新을 끌며 지은 노래 소리가 천지에 가득하다면, 그 중심이 태연하고 호연하여 흰허 막힘이 없을 것이므로, 온나라가 窮하지 않고 천하가 窮하지 않으며 백제가 窮하지 않을 것인데 詩만 窮하겠는가? 진실로 이와같다면 또한 어느 곳을 가더라도 즐겁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韓退之이하로 부터는 모두가 일찌기 窮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들의 이른바 窮이라는 것은 특히 세상이 자기를 알아 주지 않는 것을 원망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窮하다 여긴 것이다.⁵⁴⁾

좀 긴 인용문을 볼 때, 앞 단락은 시경의 국풍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배경으로 논지를 피력하였다. 그 때의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들어가며 둔암이

54) 위와 같은곳, 送洪世泰道長序, '蓋自二南之化熄 而周遼東遷 王室陵夷 天下塗炭 士之不幸 而生乎其間者 往往忠臣孝子志人義士 憂讒畏譏 失位亡國 其流離顛沛之際 憂愁悲歎之意 無以寓之 一發于歌謠 以誦詠咨嗟 則其窮亦甚矣 其所以發之者 宜幽鬱悽斷 有不忍讀者 而其辭 皆比物連類 含糊諷喻 或終篇不露其旨 雖帶憂念惻愴之意 絕無衰促迫切之語 自然有餘韻 此豈其窮不及今人乎 蓋其爲人也 皆內有所養 不與時遷移 雖遭世罔極 其發於悲歎之間者 無以傷其中之所養也 今之人士 既無當時之患 保其丘墓 優游家室 而但以爵祿之不能致 衣食之不如意 乃怛然自傷 爲此不祥之福 其亦過矣 使當時之人爲今人 則將不復有向者之言 況如今之詩乎 夫所遇之時 非如古人 而所爲之言 乃古人所不爲者 是所謂無疾而呻吟者也 其窮乃自窮之也 豈詩之故耶 夫求其有命之物 命不至而不得 輒以爲窮 則雖得其所求 亦豈無其他乎 然則其窮將無已時矣 身之不足 猶謂之窮 則況自窮其心乎 信乎窮之甚也 若簞瓢陋巷 不改其樂 曳履作歌聲 滿天地者 則其中泰然浩然 曠無滯礙 舉國不得以窮之 天下不得以窮之 百世不得以窮之 詩得以窮之哉 苟如是也 亦何往而非樂 故余以爲自退之以下 皆未嘗窮 而其所謂窮者 特對世之不已知 而自窮其心也.'

지적하는 것은 당시가 나라 전체적으로 가장 궁한 세상이라는 것이다. 즉 그때보다 더 궁벽한 세상은 없었다고 여겼다. 때문에 각층의 인물들에게 한사코 궁액이 뻗쳐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窮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들이 비록 가요에 실어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읊었지만 그 노랫말은 직설적으로 그런 처지를 표현하지 않았다. 그들은 되도록 완곡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때문에 衰促迫切한 시어의 남발은 없었다. 궁액이 지금보다 오히려 더할 것인데 왜 그러했는가? 그것은 古人들의 爲人됨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안으로 쌓인 소양의 미덕과 의리가 총만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선비적·지사적 의연함은 조금의 어려운 환경과 처지 때문에 전전공공하는 일부 위항인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고 여긴 것이다. 둔암은 여기서 위항인들의 지나친 '自窮意識'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고인들은 어려운 시대에 처해 있으면서도 '自傷意識'이나 '自窮意識'은 없었다. 그러나 今人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여겼다. 爵祿이나 衣食住가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하여 不祥之福을 토로하였다. 이런 불만이 계속된다면 그들의 '自窮意識'은 끝이 없을 것이라 여겼다. 그리하여 그는 '簞瓢陋巷에不改其樂' 하였던 고인들의 泰然하고 浩然한 정신자세를 본받을 때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자신의 결연한 정신자세의 결핍 때문에 비롯된 문제이지, 詩 때문에 그들이 窮한 것은 아니라 강조했던 것이다. 유하를 당시의 사람들은 능력있는 존재로 여겼는데, 그러나 그에게 내려진 벼슬은 결코 높은 것이 아니라 하잘것 없는 屯田長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직책이 마땅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는 窮한 인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둔암은 그렇게 생각치 않았다. 오히려 그는 유하가 不窮하다고 여겼다. 그의 任職은 비록 작은 것이나 얼마든지 처자를 보호할 수 있고 굶어 죽을 정도도 아니며, 태평시대를 가히 읊조릴 만한 처지이므로 시인의 好事라고 여겼다.⁵⁵⁾

둔암이 유하의 '自窮意識'에 비판적 자세를 견고히 하게 된 것은 당시 위

55) 위와 같은곳, '滄浪子洪道長 監屯於西海之襄津(中略)職非所宜 於是人益悲之 謂道長之窮益甚 余獨以爲道長不窮 今道長任雖小 亦有廩食以仁其妻子 得無凍餓之患 則優游斯世 以詠歌明時之太平 自是詩人之好事 何必感感中心 作對時之態乎?'

항인들의 지나친 詩作態度 때문이었다. 그들은 언필칭 ‘詩能窮人’, ‘窮而後工’ 등을 내세워 위항인이라면 의례히 궁벽한 삶으로 시도 공교로울 수 있다고 여긴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감정의 절제를 삼가치 않고 불만과 갈등을 쉽게 詩에다 표출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시적 정조는 悲傷함 그 자체였다. 申氏들은 시가 悲傷한 색조를 갖는 것을 매우 금기시했다. 서암은 둔암의 시의 悲傷함을 비판하기도 했다.⁵⁶⁾ 요컨대 그들의 ‘自窮意識’은 조선 봉건사회의 사회적·신분적 구속과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의 이와같은 갈등은 그러나 그들 시의 주제와 정서에도 단단히 한 몫을 하였다. 그들의 시에 자주 나타나는 悲憤慷慨, 또는 衰促迫切한 시풍은 당시 委巷詩壇의 일대 풍속도였으며, 그 선두에 유하가 있었던 것이다.

3. 學識을 통한 ‘自窮意識’의 克服

문학창작상 일개인의 문학적 성향을 결정짓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조 위항인들의 詩는 悲愁함과 感傷의 면에 고착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이러한 경향을 심분 이해하고 이의 극복을 유도한 인물들은 바로 그들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대부들이었다. 이들은 當時 사회의 多方에 걸쳐 인정받는 지식인으로서 그들의 시창작 경향을 지도할 만한 인물들이었다. 앞서 둔암이 지적한 대로 이들이 문학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시한 바탕은 爲人的 面貌였다. 즉 자신의 立德立言을 바탕으로 衛道訓世가 문학행위의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이미 농암에서도 발견되는 匡救의 문학적 가치 인식에 기초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爲人的 면모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그것은 곧 학식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하기에 ‘自窮意識’이나 ‘自傷意識’은 추호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환경 때문에 비롯된 위항인들의 ‘自窮意識’은 사회적 병적 요인으로 치부될 만한 것으로, 이의 극복은 오로지 시인 자신의 浩然하고 泰然한 爲人됨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본 둔암의 앞서의 언급은 이런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인간적 기본소양을 바탕으로 한 詩作

56) 『恕菴集』卷7, 答昉, ‘來詩得細看 其詞意之悲傷 不自得 胡乃遽至斯耶 盖吾姪胸中 秋冬之深冽嚴凝太多 春夏之和榮舒暢不足.’

을 권유하였던 것인데, 이 때 이러한 기본소양을 축적하는 길은 다름 아닌 독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여겼다.

실제로 유하도 자신들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學識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대부들처럼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처지도 못되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재능이 있었던 유하도 사대부들과 같은 철저한 교육을 받지는 못했다. 그는 이미 5세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하여 글방선생에게 책을 빌려 독서하기도 했다.⁵⁷⁾ 그러나 그것이 대단한 학문을 한 것은 아니었다. 겨우 몇 권의 책에 불과했다. 더구나 독서의 중요한 항목인 經書는 별다른 선생 없이 自讀할 뿐이어서 은미한 말씀이나 오묘한 뜻을 풀기 어려운 곳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미루어 새길 뿐이었다.⁵⁸⁾ 유하는 일찌기 학문과 독서의 중요함을 누구보다 절실히 깨달았다. 그는 같은 위항인인면서 완암의 아우인 鄭敏僑를 위하여 지은 送書에서 공자의 말씀인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라는 말을 들어가며 가난을 떨쳐버리고 학문에 진력해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도를 얻기 위해) 죽음도 오히려 가히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그 공함을 두려워 하겠는가? 아 슬프다!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군자의 도를 배우지 못한다면 그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중략) 이른바 군자의 도는 독서에 있다.⁵⁹⁾

라 하여 위항인 들이 더욱 학문에 매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의 이러한 강조에는 공필이라는 현실적 장벽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자존의식이 깔려있다. 공필한 자신들의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여 탈출하는 길은 오로지 독서로서만이 가능하다 여겼다. 도를 깨우치는 것이야말로 인간답게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의 틀을 고정시켜 줄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봉건사회라는 하나의 테두리로 묶여질 수 있기

57) 『柳下集』, 自序, ‘余生五歲 則知讀書 從塾師 受數卷書 已能通大義.’

58) 『柳下集』 卷10, 自警文, ‘余生五歲 卽知讀書 稍長從人受學 僅數卷而已 至於經書 皆自取讀 而微辭奧旨 似若有暗解 於心者 若推此而擴之以求乎.’

59) 『柳下集』 卷9, 送鄭季通敏僑序, ‘死猶可爲 則況畏其窮乎 嗚呼 士生斯世 不學君子之道 則其何以爲人也 (中略) 所謂君子之道 在於讀書.’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들의 공통적 인식에서의 학문은 곧 유교적 소양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들이 가능한한 사대부들과의 우위비교론에서 결코 떨어지고 싶지 않은 자의식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라 추측되기도 하지만 실현되지 못한 자신의 낭만적 이상에 대한 회한⁶⁰⁾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코 그들은 이 혼탁한 세상이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도의 존립이 꼭 필요하다고 여겼다. 그것은 도가 존재하는 세상이면 능력있는 위항의 인재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포부를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렇게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궁핍도 면하게 될 수 있다는 이상적 생각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하는 도에 매진하는 자가 궁핍을 두려워 하겠느냐고 반문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하나 완암이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이의 실천에 노력한 것은 드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생각은 그러했는지언정 그들의 궁핍은 그들을 자유롭게 독서하고 학문에 전력할 수 있는 여력을 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申氏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적어도 '自窮意識'을 혁파할 수 있는 爲人的 面貌에서 우선 그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증전엔 潤卿의 爲人됨이 滄浪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었는데 지금에서야 비로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저 창랑의 위인됨은 비록 경박한 병은 있으나, 또한 능히 집에 틀어 박혀 讀書하며 삼십년의 寒餓를 참아 왔다. 윤경은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가 창랑의 草草함 같지는 않는데 도리어 창랑의 능함을 할 수 없음을 무엇인가? 윤경의 形勢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음을 우리가 알지만 의관이나 역관에 이르러도 오히려 혹 가할 것인데 군인같은 任職은 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장차 견디기도 어려울 것이니 곧 이는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하나를 참지 못하고 문득 분수가 아닌 것을 구함에 마음을 나타내는 자이니, 어찌 평일 나를 중용하는 자에게서 바랄 바이리오?⁶¹⁾

위 글을 통해 볼 때, 완암은 신씨들의 지극한 보호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양자간에 괴리감이 생겼다. 완암이 궁핍한 삶을 견디기 어려워

60) 尹在敏, 위의 학위논문, p. 139 참조.

61) 『恕菴集』 卷7, 答昉, '從前每言潤卿爲人 則遠勝滄浪 今而始知不然也 彼滄浪者爲人 雖有輕佻之病 然亦能株守一室讀書 忍得三十年寒餓 潤卿吾輩所期待 不如滄浪之草草 而反不能滄浪之所能 何也 潤卿形勢 吾亦知其十分難支之境 而至於醫譯 猶或可也 如棘韋跗注之任 非特難得 亦將不堪 則乃是非分之物也 以一不忍 而輒生意於非分之求者 豈是所望於平日從吾遊者耶?'

군대의 직책을 부탁했고, 서암은 지나친 완암의 요구에 식상한 듯하다. 서암은 완암이 爵祿에 집착치 말고 오히려 독서하여 위인됨을 공고히 하기를 바라는 형편이다. 그러나 완암은 자신이 작록에 미련을 두는 것은 어버이를 봉양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며 이에 집착했다. 그러나 서암은 顏淵의 安貧樂道を 들어 그의 잘못된 생각을 비판하였다. 서암은 완암이 爵祿에 어두워 독서를 게을리 하는 경우를 싫어 하였던 것인데, 분수에 넘치는 요구로 자칫 그가 義理를 저버리는 인물이 될까 염려하면서 나온 생각이었다.

기실, 서암이 일찌기 농암을 사사함에 있어서, 그도 이 문제로 매우 고민 하였던 것이다. 당대의 도학가에게 학문을 배우려 하는 것은 사대부로서 보편적인 사고이다. 그러나 서암은 자신의 詞章一色の 공부방식이 사뭇 걱정되었던 듯하다. 그는 浮華無實한 文學의 폐단을 인식했으므로 그 習氣를 떨치려 마음먹었던 것이다.⁶²⁾ 이렇게 그는 大志業에 뜻을 둬으로써 사대부로서의 위인적 면모를 일신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기초 위에서 그는 여러 편의 글을 통하여 완암에게 ‘自窮意識’을 버리고 학문에 勉勵할 것을 권장했던 것이다. 신씨들의 이러한 계속된 勸勉과 批判이 무엇보다도 그들을 가장 아낀 당대의 사대부들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위항인들의 생활상과 그들의 문학적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들은 당시 저들을 옹호했던 사대부들과 달리 권면과 비판의 두 축을 그쪽에 보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독서와 학식을 통하여 문학의 匡救의 실질 회복을 기하고 더이상 환경에서 오는 ‘自窮意識’으로 병없이 신음소리를 내는 탈색된 唐杜風에 顛倒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왕에 이런 대세라면 송시풍으로의 전환을 기대하고픈 점이 서암에게 잠재했을 것이다.

유하에게도 노년기에 이를수록 독서를 하지 못한 회한과 반성의 미련은 남아 있었다. 특히 완암의 경우, 서암이 여러 글들에서 ‘自窮意識’과 독서에 대한 우려와 비판적 자세를 계속해서 보였기 때문에 그는 유하보다 더 심한

62) 『怨菴集』 卷6, 上農巖先生書, ‘願可以無用之小技 仰干于執事 而取人之譏笑哉 (中略) 靖夏對曰 世方以脩身爲己之學見公 公亦以此勉人 願此小技 何足以見公哉 (中略) 靖夏雖不肖 亦稍知不學之不可 豈敢以浮華無實之文 爲究竟事業也 願以嗜好之先入 而習氣之不能脫耳’

시풍격의 변질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유하보다는 서암에게서 직접 詩作을 학습했으므로 서암 사후는 몰라도 탈색된 시풍에 대해 뇌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그가 전혀 그들의 비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 여겨진다. 유하 못지 않게 완암도 현실의 불만을 시로 토로하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당대 이들의 이와같은 비판의 파고는 후기 위항문학의 재편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들이다. 기존 문학질서의 해체와 재편은 이 시기 가장 큰 특징중에 하나인데, 이 와중에서 생겨난 이런 문제들은 이후의 문학성향과도 어떤 방향으로든 연관될 것들이다.

V. 結 論

이제 까지 조선후기 위항문학의 거두인 柳下 洪世泰·浣巖 鄭來僑와 農巖 一門의 주요인물로 활약했던 愼菴 申靖夏와 그의 長姪인 屯菴 申叻을 중심으로 양인에 대한 詩文學의 관심과 勸勉意識을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하여 당대 문학 풍토와 위항인의 시적 성향을 살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논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이들의 만남은 위항인들의 높은 문학적 수준과 서암의 詩癡癖이 상응해 가능했다. 그들은 서암의 '石湖亭詩社'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 유하와 완암을 필두로 농암일문들이 주축이 된 이 모임은 새로운 주목을 요한다. 서암은 유하와 30년 연령 차이를 극복해 가며 망형지우로 지냈으며, 유하 또한 이런 그의 죽음 앞에서 슬픔으로 廢詩하겠다는 마음을 먹음만큼 깊은 友誼를 나누었다. 서암과 완암은 同齒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성장했으며 시를 통한 사제간이었다. 대를 이어 교류를 돈독히 하였던 만큼 서암의 誘掖啓導도 남달랐고, 완암의 서암에 대한 從遊도 절대적이었다. 서암이 죽자 머리가 빠지도록 糊口之策을 세워야 했던 그였다. 둔암은 숙부를 통해 이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나갔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교류는 문학을 통해서 확대되었으며, 그런 만큼 서로간에 문학적 취향과 저간의 사정에 대한 이해도

도 높았다. 곧 신랄한 비판과 끊임없는 계도도 이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위항인들이 사대부들과 어울려 그들의 문학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겪는 사회적·신분적 한계는 지대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시는 많은 갈등의식을 품었다. 도처에 자신들이 처한 제약과 차별에 대한 강한 비판 정신이 시로써 수렴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이들의 시는 悲憤慷慨한 어조를 띠게 되었다. 쓸쓸함과 결분의 감정, 불평의 기분이 일어나면 이를 시로 발설했다는 유하의 고백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이에 자연스럽게 감정을 여과시키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들이었지만 지나친 비분강개가 오히려 悲憤한 시어를 양산하게 되었다. 서암의 지적처럼 이러한 시어는 學杜를 하면서 나오게 된 것으로 이는 변질된 것으로 치부되었다. 이들의 비판은 병이 없는데도 신음하는 자들이라고 까지 공격을 받았다. 당시 농암을 중심으로 송시풍의 제창도가 제기되던 시점에서 터진 이 문제는 새로운 파급을 몰고왔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렇듯 이 시대 위항인들의 풍격의 변질은 적지 않은 논쟁거리였던 것이다.

세째, ‘窮而後工’論은 이미 한퇴지와 구양수에서부터 제기되어 조선조 중기의 시인들에 있어서도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이다. 특히 이 시기는 위항인들의 眞詩創作論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문제였다. 당시 천기론에 입각한 진시의 창도는 농암이후로 그 일문들이 모두 동참하여 이의가 없었던 문제였다. 시창작상 嗜慾과 物累, 그리고 名利에서 벗어나야만이 훌륭한 진시를 쓸수 있다는 것이 결론인데, 이것이 이 문제와 결집되면서 상당한 파급을 가지고 왔다. 위항인들은 신분상 사회적 제약 때문에 쉽게 몰락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러한 점들이 많을 사대부들의 시와 자신들의 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하의 詩, 呈南隣(卷11)에서 이런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즉 그의 山林草澤論도 따지고 보면 곤궁이라는 창작역전이 오히려 시적 성취도를 더 높여줄 수 있다는 관점에 나온 것이다. 자신들의 선택된 운명이 시창작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여기면서 대립의 요인을 남겼다. 또한 당대 이러한 이들의 생각에 부응한 인물이 澹軒 李夏坤과 息庵 金錫胄들이다. 이들도 유하와 밀접한 친분을 가진 인물로 ‘窮而後工’詩論을 옹호해 주므로써 결과적으로 이들의 시창작 동기를 갖

게 하였다. 그러나 서암이나 둔암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더이상 '窮而後工'의 口實化를 용납치 않았다. 이유는 悲颯하고 衰促迫切한 詩語 때문이다. 이들의 비판은 상당히 강렬하여 이쪽에 기대려는 그들의 마음을 '自窮意識', 또는 '自傷意識'으로 여기고, 이러한 口實과 用心을 '無病而呻吟者'라고 획책했다. 이들은 이러한 '自窮意識'을 벗어나기 위해 수시로 독서를 통한 학식을 겸비할 것을 주장한다.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송시풍으로의 유도와도 관련이 있을성 싶다. 自傷이나 自窮을 탈피하고 독서를 통한 진정한 인간적 가치의 추구는 문학행위의 본질론에 해당한다. 이즈음 송시풍으로의 대안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함께 천기론에 입각한 진시를 추구하고, 農巖一門이라는 뿌리를 공유한 이들이었지만, 시풍격의 변질로 인한 파장과 '窮而後工'論의 상이한 관점의 차이는 문학질서의 해체와 재편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이시대 문학현상의 糾明을 위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 姜明官, 朝鮮後期 閔巷文學研究, 成大 博士論文 1991.
 金善祺, 小華詩評研究, 全北大 博士論文 1993.
 김성희, 鄭來僑詩研究, 연세대 碩士論文 1988.
 金興圭, 『朝鮮後期の 詩經論과 詩意識』, 高大 民族文化研究所 1982.
 文盛培, 浣巖鄭來僑研究, 成大 碩士論文 1990.
 朴禹勳, 壺谷南龍翼 文學論研究, 忠南大 博士論文 1988.
 白源鐵, 朝鮮後期 漢詩批評論의 展開樣相, 『東洋學』 第23輯, 檀大 東洋學研究所 1993.
 安大會, 洪世泰論, 『朝鮮朝 漢詩作家論』, 東岳語文學會 1993.
 _____, 三淵 金昌翁의 <葛驛雜詠>研究, 『韓國漢詩研究』 1, 韓國漢詩學會, 새문社 1993.
 禹應順, 조선중기 '詩窮而後工'論의 樣相과 性格, 『韓國漢文學과 儒敎文化』,

- 著谷金世漢教授定年退職紀念論叢, 亞細亞文化社 1991.
- _____, 朝鮮後期 四大家의 文學論 研究, 高大 博士論文 1990.
- 尹在敏, 朝鮮後期 中人層 漢文學研究, 高大 博士論文 1990.
- _____, 洪世泰의 文學思想, 『韓國文學思想史』, 啓明文化社 1991.
- 李庚秀, 委巷詩人の 天機論, 『朝鮮後期 漢文學의 再照明』, 창작과 비평사 1983.
- 李相周, 澹軒 李夏坤 文學의 研究, 成大 博士論文 1994.
- 李相鎭, 柳下洪世泰研究, 成大 碩士論文 1984.
- _____, 朝鮮後期 閭巷文學의 展開過程과 文藝意識, 成大 博士論文 1991.
- 李勝洙, 金昌翁의 詩世界 研究, 漢陽大 碩士論文 1991.
- _____, 拙修齋 趙聖基論, 『韓國學論集』第23輯, 漢陽大 韓國學研究所 1993.
- 李鍾虎, 三淵金昌翁의 詩論에 關한 研究, 成大 博士論文 1991.
- 張源哲, 朝鮮後期文學思想의 展開와 天機論, 精神文化院 碩士論文 1982.
- 趙鍾業, 農巖詩論研究, 東喬閔泰植博士古稀儒學論叢 1972.
- 蔡奐鍾, 恕菴 申靖夏의 古文觀, 『語文研究』第19輯, 忠南大 語文研究會 1989.
- _____, 農巖 金昌協 文學研究, 忠南大 博士論文 1994.
- 千柄植, 『朝鮮後期 委巷詩社研究』, 國學資料院 1991.
- 崔信浩, 朝鮮後期 詩論의 몇가지 性格, 『民族文化研究』第18輯, 高大 民族文化研究所 1984.
- 허경진, 三清詩社와 <六家雜詠>, 『韓國學報』第53輯, 一志社 1988.